

# 『김진옥전』의 水中戰爭譚과 그 幻想美學

신태수\*

## || 차례 ||

- I. 문제제기
- II. 水中戰爭譚의 系譜
- III. 『김진옥전』의 용궁 풍경과 환상미학
- IV. 환상미학 차원에서 본 『김진옥전』의 의의
- V. 결론

### 【국문초록】

『김진옥전』은 환상성이 강한 고소설이다. 수증전쟁담이 『김진옥전』의 환상성을 높여 주는 주된 요인이다. 수증전쟁담에서 나타나는 수증계는 지상계와 대등할 뿐 아니라 지상계와 더불어 교차적으로 배치된다. 한 마디로 말해, 수증계의 위상이 대단하다. 수증계가 아니고서는 주인공이 옥망을 구현할 수 없는 양상을 보이므로, 수증계로 인해 ‘옥망-성취’ 구도가 형성된다고 할 만하다. ‘옥망-성취’ 구도에는 두 개의 옥망, 즉 김진옥의 옥망과 서술자의 옥망이 들어 있다. 두 개의 옥망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 하나가 된다. 즉, ‘옥망-성취’ 구도가 환상적 장면을 끌어들이 삼각형 형태를 이루고 이 삼각형 형태의 환상적 장면이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 환상미학 차원에서 볼 때 『김진옥전』은 두 가지의 의미를 지닌다. ‘反文化 지향과 인식의 새 틀 제시’와 ‘경계 해체와 우주론적 사유의 확장’이 그것이다. 서술자의 조종자가 작자층이라고 볼 때, 『김진옥전』 작자층이야말로 환상미학의 주체요 구현자이다.

---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주제어 : 환상성, 수증전쟁담, 수록 양계, '육망-성취' 구도, 환상적 장면, 환상미학, 반문화, 우주론적 사유.

## I. 문제제기

『김진옥전』은 환상성이 강한 고소설이다. 어느 이본에서나 환상적 인물과 사건이 상당한 분량으로 제시되기 때문에 환상적 장면의 비중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sup>1)</sup> 대부분의 논자들은 『김진옥전』이 20세기 초에 창작되었다고 추정한다. 필사본과 방각본의 목록에 『김진옥전』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진옥전』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이 나타난다고 하여 이렇게 추정하곤 한다.<sup>2)</sup> 20세기 초라면 고소설이 신소설과 경쟁하면서 자기 갱신을 꾀하던 시기였으므로, 자기 갱신의 차원에서 개인주의적 성향을 이해해 볼 수 있다. 물론, 개인주의적 성향만이 자기 갱신 노력의 전부는 아니다. 『김진옥전』에서는 전통적인 환상성을 통해 '세계 인식의 새 틀'을 제시하기 때문에, 전통 세계에 대한 성찰 또한 고소설의 자기 갱신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김진옥전』에 대한 연구논저는 그리 많지 않다. 여타 작품들과 『김진옥전』을 함께 다루는 경우는 있어도, 『김진옥전』에 대한 단행 논문은 여섯 편에 불과하다. 단행 논문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줄거리, 설화적

---

1) 방각본은 없고 필사본과 활자본만 전한다. 필사본은 52종이고 활자본은 11종이다. 이명현, 「〈김진옥전〉의 대중성-도식성과 환상성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18, 東아시아古代學會, 2008, p.288 참조.

2) 김현양, 「1910년대 활자본 군담소설의 변모 양상」, 『淵民學志』4, 淵民學會, 1996, pp.353-358에서 『김진옥전』이 전대 군담소설과는 달리 혼사갈등이 국가갈등과 정치갈등보다 더 강조된다고 하며 『김진옥전』이 후대 군담소설의 변모과정을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규정한다.

성격, 이본 상황, 구성 등의 전반적인 특징을 개괄적으로 소개하는 논문 네 편<sup>3)</sup>과 조선후기 군담소설의 일반적인 경향 속에서 『김진옥전』이 지니는 가치 및 위상을 파헤친 논문 두 편<sup>4)</sup>이 그것이다. 전자는 『김진옥전』의 기본 정보를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후자는 『김진옥전』의 심층 논점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후자가 전자를 발판으로 하여 이루어진다고 볼 때, 궁극적인 지향점은 후자라고 할 수 있다. 두 편의 논문으로 후자가 충족되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 조선후기 군담소설과의 관련성 이외에도 따져야 할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에 논문 두 편은 시발점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김진옥전』에서 따져야 할 사안은 수증전쟁담<sup>5)</sup>이다. 모티프 차원을 넘어 미학적 차원으로까지 『김진옥전』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수증전쟁담에 의하면, 김진옥은 오랑캐를 물리치고 돌아오는 길에 수증계로 가서 등곡 용왕을 사로잡는다. 김진옥이 등곡 용왕을 사로잡는 사이, 그 부인 유소저가 반대파인 무양공주에게 온갖 고초를 겪는다. 『김진옥전』에서 ‘김진옥과 유소저의 결연’ 및 ‘부모와의 상봉’이 주된 내용이라고 볼 때, 이 주된 내용과 수증전쟁담은 긴밀하다고 할 수 있다. 전대 설화와 고소설에서도

3) 국웅상, 『김진옥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pp.1-76; 노상진, 『김진옥전의 이본양상과 서사구조』,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p.1-58; 김경숙, 『<金振玉傳>研究』, 『연세어문학』21,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pp.235-267; 박성석, 『<김진옥전> 연구-설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배달말』11, 배달말학회, 1986, pp.215-234.

4) 김경숙, 『후기 군담소설의 고찰-〈김진옥전〉을 중심으로』, 『漈上古典研究』9, 漈上古典研究會, 1996, pp.241-266; 이명현, 앞의 글, pp.285-314.

5) episode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Stith Thompson은 전승력을 지닌 최소 단위를 motif라 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완결된 구전설화를 type라 했다. motif가 두 개 이상 묶이되 독립성이 없다면 motif도 아니고 type도 아닌 바인데, 이런 경우를 episode라 할 수 있다. 스티스 톰슨, 『說話學原論』, 尹勝俊·崔光植 譯, 啓明文化社, 1992, pp.507-508 참조.

수중전쟁담이 나타나지만,<sup>6)</sup> 작품 내적인 영향은 큰 편이 아니었다. 즉, 수중전쟁담이 삽화로서의 성격만을 지닐 뿐이고, 『김진옥전』에서처럼 주제 형성에 관여하지 않는다. 결국, 『김진옥전』에 나타나는 수중전쟁담의 큰 비중이 고소설의 자기 갱신 노력과 무관하지 않을 듯한데, 이 점은 반드시 살펴야 하는 과제가 된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자는 다음과 같은 방법론을 구사할 예정이다. 첫째, 『김진옥전』의 수중전쟁담이 어떤 위상을 지니는지를 파악한다. 수중전쟁담은 『삼국유사』 이래로 서사문학에서 줄곧 나타나는 바이므로, 뚜렷한 계보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계보에 『김진옥전』의 수중전쟁담을 비춘다면 그 위상이 밝혀질 수 있을 것 같다. 둘째, 환상의 진폭을 가늠해서 환상미학<sup>7)</sup>을 검출하고자 한다. 환상의 진폭은 욕망과 현실의 간극에 의해 형성되므로, ‘욕망-성취’ 구도를 추출한 다음 ‘욕망-성취’ 구도에 의거해서 환상의 진폭을 확인하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리라 본다. 연구 대상으로 어느 이본을 택하더라도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내용면에서 축소 및 확대 현상이 나타나기는 하나, 주제가 달라질 정도는 아니기 때문이다. 필자는 덕흥서림본 활자본을 대상으로 삼아 『김진옥전』의 전반적인 의의를 조명해보기로 한다.

6) 『三國遺事』의 <居陀知說話>, 『高麗史 世系』의 <作帝建說話>, <이대봉전>, <양주봉전>, <구운몽> 등이 그 예이다.

7) 환상적 표현을 통해 이성적 사유체계의 정합성을 부정하고 야생의 사고, 감각적 직관, 주술적 감성 등을 통해 삶의 진실을 들추어내고자 하는 문화적 시각이나 행위를 가리킨다. 환상미학에 대해서는 김성룡, 『고전소설의 환상 미학』, 『韓國 古典小說과 敘事文學(上)』, 集文堂, 1998, pp.149-175에서 다룬 바 있으므로 참조해 불만하다.

## II. 水中戰爭譚의 系譜

수중전쟁담은 김진옥의 행적과 얽혀 있다. 김진옥이 화산도사의 도움으로 남선우를 격파하고 본국으로 돌아오다가 남해 용왕의 간곡한 요청을 받고 수중에 들어가서 등국 용왕을 격퇴했다고 하는 내용이 바로 수중전쟁담이므로, 수중전쟁담은 두 가지 모티프의 합성물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영웅이 귀국하는 도중에 용족의 요청을 받고 용궁에 들어가기’ 모티프와 ‘영웅이 용족을 괴롭히는 적대세력 물리치기’ 모티프가 그것이다. 전자를 모티프A라고 하고 후자를 모티프B라고 할 때, 모티프A와 모티프B가 결합하여 수중전쟁담을 형성한다고 볼 수 있다. 모티프A와 모티프B는 비중이 엇비슷하고 각기 오랜 연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이든 소홀히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따진 다음 『김진옥전』의 위상을 검출하기로 한다.

모티프A와 모티프B는 『삼국유사』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삼국시대 전승을 기록한 책이 『삼국유사』이므로, ‘영웅-용족-적대자’의 구도는 삼국 시대에 회자되었다고 해야 할 것 같다. ‘영웅-용족-적대자’의 구도가 선행해야 모티프A와 모티프B가 나타난다는 점에서, ‘영웅-용족-적대자’의 구도는 모티프A와 모티프B의 전제 조건이 된다. 모티프A와 모티프B가 서로 다른 기록 속에 담겨 있어 눈길을 끈다. 편작자인 일연이 모티프A와 모티프B가 별개의 자료에 영향을 받았는지 하나의 자료를 별개의 모티프A와 모티프B로 분리시켰는지는 불분명하나, 일연이 모티프A와 모티프B를 별개로 여겼을 개연성이 높다. 일연이 민간전승에 입각해서 해양 공간을 인식했다고 하는 주장<sup>8)</sup>에 의거하면, 서로 다른 민간전승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별개의 모티프A와 모티프B가 나타났을지 모른다. 그런 정황을

8) 김승호, 「해양 공간의 설화적 수용과 의미-『三國遺事』를 중심으로」, 『韓國文學研究』 37,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2009, pp.50-52 참조.

확인하기로 한다.

모티프A는 卷4 義解의 <寶壤梨木>과 卷5 神呪의 <明朗神印>에서 나타난다. <보양이목>과 <명랑신인>에서는 각기 知識祖師와 明朗法師가 용왕의 초청을 받는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보면, 지식조사는 대국에서 법을 전수받아 돌아올 때 서해 용왕의 초청을 받아 용궁에 들어가고, 명랑법사는 당나라에서 道를 배우고 돌아올 때 해룡의 초청을 받아 용궁에 들어간다. 『삼국유사』에서 모티프A가 두 편밖에 없으나 하면 그렇지 않다. 서술이 불분명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卷4 義解의 <關東楓岳鉢淵藪石記>와 卷3 塔像의 <前後所將舍利> 또한 모티프A와 동귀이다. <관동풍악발연수석기>와 <전후소장사리> 모두 고승이 중국에 다녀오는 도중에 용궁에 들러 용왕을 만난다고 하기 때문이다. 결국 모티프A가 『삼국유사』에서 네 편에 걸쳐 나타나는 바이므로, 적지 않은 빈도수라고 할 수 있다.

고승이 왜 귀국 도중에 용왕의 초청을 받는지가 의문이다. 의문을 풀어야 모티프A가 형성된 연유를 캐낼 수 있다. 전후 상황을 보면, 용왕은 다급하다. 물질적으로 요부하고 별천지에서 살지만, 정신적으로는 몽매하며 야만성을 지녔다. 야만성은 불교문화를 접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야만성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불교문화에 정통한 자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인데, 그런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자로는 중국에서 道法을 터득하고 불교적 우주 그물망의 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고승밖에 없다.<sup>9)</sup> 불교시대의 고승이란 遣唐 留學僧이다.<sup>10)</sup> 건당 유학승이 국내로 들어오면 여러 곳에서 초

9) 신태수, 『三國遺事』의 龍王과 龍宮 形象, 『韓民族語文學』74, 한민족어문학회, 2016, pp.134-138에서 이런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10) 건당 유학승의 전반적 개황에 대해서는 김승호, 앞의 글, pp.50-65에서 잘 다루어 놓았다.

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먼저 초치해야 한다. 용왕이 국내 지경의 초입에서 귀국승을 초청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문제가 발생할 때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에게 의존하는 오랜 관습이 모티프A에 투영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모티프B는 卷2 紀異의 <眞聖女大王居陀知>에서 나타난다.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는 거타지가 서해 용왕의 요청으로 老狐를 처치한다고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보면, 鵠島에 홀로 남게 된 거타지가 활을 쏘아 꺾멸되기 직전의 서해 龍族을 구출하고 용녀와 가연을 맺는다. 권능이 대단할 것 같은 龍神이 일개 민간인에게 의지하고 딸까지 바쳐야 할 정도이니, 용신의 권능은 너무나 추락했다. 이와 유사한 전승이 하나 있다. 卷2 紀異의 <元聖大王>이 그것이다. <원성대왕>에서는 원성대왕이 河西國人에 의해 중국으로 잡혀가던 세 마리의 용을 구출했다고 한다. 원성대왕이 무용을 발휘하지는 않지만, 명철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진성여대왕거타지>와 동계이다. <진성여대왕거타지>에서는 민간영웅이 등장하고 <원성대왕>에서는 상층영웅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모티프B의 진폭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용왕의 권능이 미약하다는 설정은 일반적인 용신신앙과는 거리가 멀다.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용왕과 불교의 관계에 유의해야 한다. 용왕은 불교에서 파생되었으나 민간신앙과 결합하면서 정체성에 변화가 있었다.<sup>11)</sup> 즉, 예전 관례를 답습하며 불교와 친연성을 지니기도 했지만, 예전 관례를 벗어나 불교와 대척적 위치에 서기도 했다. 편작자 일연은 용신신

11) 이에 대해서는 기존의 여러 논저에서 언급한 바 있다. 대표적인 논저 두 편을 들기로 한다. 金煥泰,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龍神信仰』, 『佛敎學報』11, 東國大 佛敎文化研究院, 1974, pp.144-145; 張貞海, 『佛經 속의 龍』, 『中語中文學』22, 韓國中語中文學會, 1998, pp.576-579 참조.

앙을 불교의 영향권에 두어야 한다고 여기고, 용왕의 권능을 깎아내리고자 애썼다. <진성여대왕거타지>와 <원성대왕>에서 용왕을 초라하게 설정한 까닭이 여기에 있다. 이런 시도는 용왕이 불교에 편입되어야 막강한 권능을 지닐 수 있다고 하기 위함이다. 용왕이 불교에 편입될 때 실제로 권능이 막강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불교 중심적 입장에서 용신신앙과의 관계를 한 가닥으로 정리하고자 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티프B는 그런 결과물이다.

모티프A와 모티프B는 서사문학사에서 큰 의의를 지닌다. 어느 모티프이든 간에 용신신앙에 구멍을 낸다는 점이 그것이다. 용왕에 대해 모티프A에서는 야만성을 지녔다고 하고 모티프B에서는 미약한 권능을 지녔다고 하므로 용신신앙에 구멍을 낼 수밖에 없다. 두 모티프를 결합시킬 경우, 용신신앙의 구멍은 더욱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용족이 외부세계의 영웅에게 적대세력을 물리쳐 달라고 애걸한다는 내용이 됨으로써, 용족이 외부세계의 영웅을 갈구하는 상황이 더욱 명료해지기 때문이다. 용신신앙의 구멍은 서사문학, 좀 더 좁혀서 말한다면 조선시대 군담소설에 있어서 민간 영웅을 불러들이는 통로이다. 구비전승의 영웅이 군담소설의 주인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른바 ‘용신신앙의 구멍’이라는 틀을 창작 기법으로 수용한 『이대봉전』·『양주봉전』·『구운몽』·『김진옥전』은 그 좋은 예이다.

어느 군담소설에서나 ‘용신신앙의 구멍’이 같은지가 의문이다. ‘용신신앙의 구멍’이 각기 다르다면 해중 문제에 대한 영웅의 개입 양상이 다양하다는 의미이고, 서로 같다면 해중 문제에 대한 영웅의 개입 양상이 일정하다는 의미이다. 논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작품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sup>12)</sup> 『이대봉전』에서는 이대봉이 부친과 귀국하는 도중에 서해 용왕의 요청을 받아 남해 용왕을 무찌른다고 하고, 『양주봉전』에서는 양주봉이 부



친과 귀국하는 도중에 서해 용왕의 요청을 받아 무기를 무찌른다고 하고, 『구운몽』에서는 양소유가 동정 용녀인 백능과의 요청을 받아 남해 龍子를 무찌른다고 하므로, 김진옥이 남해 용왕의 요청을 받아 등곡 용왕을 무찌른다고 하는 『김진옥전』과 다를 바가 없다. 네 작품이 흡사하므로, 두 모티프의 결합체인 수중전쟁담이 전승 삽화로서 네 작품에 이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네 작품에서 수중전쟁담의 기능이 모두 같은가 하면, 그렇지 않다. 크게 보아, 수중전쟁담이 주인공의 용력을 과시하는 장치로서 독자의 흥미를 유발시키기만 하는 경우와 인물과 사건의 구심점으로서 작품의 주제를 뒷받침하는 경우로 나누어진다. 전자에는 『이대봉전』·『양주봉전』·『구운몽』이 속하고 후자에는 『김진옥전』이 속한다.<sup>13)</sup> 이와 같이 분속할 수 있는 까닭은 『이대봉전』·『양주봉전』·『구운몽』의 경우는 수중전쟁담이 없더라도 주제 형성에 별 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하지만, 『김진옥전』의 경우는 수중전쟁담이 없다면 주제 형성에 크나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김진옥전』의 작자가 수중전쟁담을 놓고 인물과 사건을 총괄하는 구심점으로 삼지 않았다면 불가능했다. 이 점에서 『김진옥전』의 작자층이야말로 수중전쟁담이라는 전승 삽화의 계보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12) 서술 분량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수중전쟁담은 네 작품의 어느 이본에서나 나타난다. 특정 이본을 선택해서 거명할 필요는 없다.

13) 이에 대해서는 김경숙, 「후기 군담소설의 고찰-〈김진옥전〉을 중심으로」, 『溯上古典研究』9, 溯上古典研究會, 1996, pp.255-259에서 잘 지적하고 있다.

### Ⅲ. 『김진옥전』의 용궁 풍정과 환상미학

『김진옥전』에 수중전쟁담이 어떤 방식으로 이입되었는지가 관심사이다. 인물과 사건이 수중전쟁담에 결부되었다는 점에서, 수중전쟁담에는 인물과 사건을 이끌 만한 장치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용왕과 적대세력의 대결, 용왕에 대한 김진옥의 긍정적 시선, 판세를 뒤집을 만한 김진옥의 용력, 용궁 구원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될 여건 등이 수중전쟁담에 갖추어진 장치이다. 이 장치는 인간세계의 경험과는 거리가 멀다. 바꾸어 말해, 수중전쟁담의 여러 장치는 환상적 성격이 매우 강하다. 『김진옥전』의 작자는 환상적 성격을 강화함으로써 무엇을 성취하고자 했는가? 이 문제는 ‘환상적 장면에 내장된 삶의 진실 찾기’ 즉 환상미학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용궁이라는 환상세계를 단서로 하여 『김진옥전』의 환상미학을 규명해보고자 한다.

#### 1. 수중계 장면과 용궁 풍정

『김진옥전』에서 수중계 장면의 비중이 상당히 높다. 분량의 측면에서는 작품 전체의 1/3에 해당되고, 내용 전개 측면에서는 절정 부분에 해당된다. 분량도 많고 내용 전개에서도 핵심 부분을 차지하므로, 수중계 장면이 없다면 『김진옥전』이 성립될 수 없다는 언급도 가능하다. 수중계는 분명히 비현실적 공간이다. 비현실적 공간이라 할 때 허무맹랑하고 기괴할 것 같은 인상을 주지만, 등장인물을 보면 그렇지 않다. 용왕은 幽顯이 서로 다르다고 하면서도 오래 전부터 주인공의 명성을 들었다고 하고, 주인공은 용왕을 처음 대하고도 당황하거나 머뭇거리지 않는다. 전후 상황으로 보아 주인공과 용왕은 서로의 존재를 이미 들어서 알고 있었고 우호적으로 인식했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각자가 서로에게 너무나 익숙하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원쉬 부친을 되시고 동자를 짜라 드러가니 텃지 명낭하고 일월이 조요하니  
 쏘흔 별건곤이라 궁궐이 장려하고 황금티자로 써시되 수정궁이라 호엿더라  
 룡왕이 원슈를 마자 백옥상에 좌정흔 후 갈오디 과인이 일작 원슈의 티명을  
 드린 지 오릿디 유현이 노슈흔 고로 봉영치 못하고 안자 마지니 심히 불안토  
 소이다 원쉬 왈 나는 인간 미천흔 사름이라 티왕이 이러툃 과디하시니 불승송  
 황하여이다 왕이 불감흔를 칭스흔고 쥬과를 니와 시녀로 호야금 청하쥬를 옥  
 비의 가득 부어 권흔니 원쉬 스양치 아니코 취토록 먹은 후 셔로 담화하더니  
 (37~38쪽)

김진옥의 용궁 진입 장면이다. 용궁은 그야말로 환상적이다. 규모가 크고 화려하며 황금대자로 수정궁이라고 이름을 새겼다. 궁궐의 이름이 ‘수정궁’이라고 하는 순간부터 미사여구가 필요 없다. ‘수정궁’이 ‘극도로 웅대하고 화려한 해중 궁궐’을 지칭하는 관습적 용어이기 때문이다.<sup>14)</sup> 수정궁에 걸맞게 기물도 예사롭지 않다. ‘백옥상’과 ‘옥배’가 있다고 했으니, 진귀한 기물과 내부 장식물이 없을 리 없다.<sup>15)</sup> 인간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환상적이지만, 주인공의 태도는 너무나 천연덕스럽다. 용왕이 술을

14) 任昉(460~508, 竟陵八友의 한 명)의 『述異記』에 의하면, 수정궁은 ‘수정으로 꾸민 아름다운 궁전’이다. 임방이 수정궁을 소개한 이래, 이계의 웅대하고 아름다운 궁궐을 으레 수정궁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달에도 수정궁이 있고 해저에도 수정궁이 있다고 하나, 수정궁이라고 하면 주로 해저에 있는 궁궐을 가리킨다. 예컨대, 고소설에서는 용궁의 주 건물을 거개 수정궁이라고 한다.

15) 용궁을 형상화한 소설에서는 으레 용궁에 진귀한 기물과 내부 장식물이 있다고 한다. 『龍宮赴宴錄』과 『崔生遇眞記』에 그런 기물과 장식물이 잘 나타나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용궁부연록』에서는 용궁에 七寶華床이나 水晶珠簾이나 雲母揮帳 등이 있다고 하고, 『최생우진기』에서는 용궁에 황금기둥과 푸른 옥돌 주춧돌과 보석이 즐비한 책상과 하늘하늘한 비단 휘장 등이 있다고 한다.

부어주니 사양하지 않고 마셨고 용왕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담소를 주고받는다. 주인공이 용왕의 위용에 압도되어 찢찢매어야 제격일 터인데, 이와 같이 천연덕스러울 수 있는 까닭이 무엇인지가 의문이다. 용왕 앞에서 모든 인물이 천연덕스러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까닭을 반드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다.

논점을 해명하기 위해서는 용왕과 주인공의 담소 장면을 다른 작품을 찾아내어 서술자의 측면에서 『김진옥전』과 견줄 필요가 있다. 견줄 만한 작품은 『용궁부연록』, 『최생우진기』, 『이대봉전』, 『양주봉전』이다. 이런 작품들의 서술자는 모두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용왕과 주인공의 담소 장면을 다루고 있다. 서술자를 기준으로 할 때, 주인공의 유형은 두 가지다. 『용궁부연록』·『최생우진기』와 같이 용왕의 위용에 억눌려 망설이거나 머뭇거리린다고 하는 경우와 『이대봉전』·『양주봉전』과 같이 용왕과 당당히 맞대면하며 수작한다고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sup>16)</sup> 전자의 서술자는 주인공이 새로운 세계에 경이만을 느낀다고 하고 후자의 서술자는 주인공이 새로운 세계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는데, 『김진옥전』의 서술자는 당연히 후자 쪽이다. 전체 구성과 수중계 장면을 들여다보면 서술자의 태도는 더욱 분명히 드러난다.

#### □ 전체 구성

##### A. 남선우의 침입과 가족의 이산

16) 어떤 개념을 적용시키느냐에 따라 환상문학이 될 수도 있고 환상문학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령, 내포독자나 작중인물의 망설임이 나타나야 환상문학이라고 하는 츠베탕 토도로프의 시각에서 보면 『용궁부연록』과 『최생우진기』만 환상문학에 속하고, ‘일반문화에서 말해지지 않은 부분’을 들추어내기만 하면 환상문학이라고 하는 로즈마리 잭슨과 케스린 흄의 시각에서 보면 『용궁부연록』, 『최생우진기』, 『이대봉전』, 『양주봉전』 모두가 환상문학에 속한다.

- B. 화산도사의 도움과 유소저와의 가연
- C. 남선우의 재침과 김진옥의 출정
- D. 남해 용왕의 요청으로 등국 용왕 격퇴
- E. 해중 보배 수득과 유소저 소생
- F. 공주의 역모 진압과 가문의 부귀영화

□ 수중계 장면이 든 D와 E의 세부 단락

1. 남선우가 재침하자 화산도사가 황제에게 현몽해 김진옥을 출전시키라고 권한다.
2. 김진옥이 화산도사의 경고를 수용해 적을 대파하고 남선우의 항복을 받는다.
3. 김진옥이 귀국하는 길에 풍랑에 표류하게 되자, 용신에게 구명하기를 앙축한다.
4. 김진옥이 섬에서 털복숭이 사람을 만났는데, 의외로 오매불망하던 부친이었다.
5. 남해 용왕이 김진옥을 초치하여 등국 용왕을 물리쳐달라고 간절히 요청한다.
6. 김진옥은 수부대도독이 되어 용왕이 조발해준 팔십만 명을 거느리고 출전한다.
7. 무양공주가 김진옥의 아들 애운을 물에 빠뜨리라고 하고 유소저마저 하옥시킨다.
8. 김진옥이 탁월한 용력으로 등국 용왕을 나포해 개선하니 용왕은 대연을 베푼다.
9. 용왕은 죽은 자도 살려내는 진주와 엄동설한에도 춥지 않는 비단을 선물한다.
10. 화산도사가 원수에게 유소저가 화를 당하리니, 금일내로 가서 구하라고 한다.
11. 화산도사가 마련한 소선을 타고 건너가 진주로써 혼절한 유소저를 되살린다.

『김진옥전』의 전체 구성을 보면, 서술자가 수중계와 지상계를 긴밀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즉, 김진옥이 불세출의 영웅이어서 수륙 양계를 넘나든다고 하려니, 수중계와 지상계 간에 별 차이를 둘 수 없었다. 수중계에서 나타나는 김진옥의 거동과 지상계의 거동이 유사한 까닭이 여기서 기인한다. 수중계 진입하기를 지상계 나들이하듯 하고 수륙 양계로부터 받은 군대 수장의 職名이 낮익은 현상<sup>17)</sup>도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양계 간에 고저 내지 이질성을 제거해 버렸으므로, 수중계 특유의 형상이 없어진 셈이 되었다. 다시 말해, 서술자가 『용궁부연록』의 이색적 인물인 게, 자라, 거북의 껍질 갑옷을 입은 문지기<sup>18)</sup> 따위가 등장한다고 할 수 없다. 주인공을 水陸兼旆의 영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만으로 부족하다. 서술자가 시도한 획기적 작업이 하나 있다. 지상계와 수중계의 교차적 배치 현상이 그것이다.

교차적 배치 현상은 ‘수중계 장면이 든 D와 E의 세부 단락’에서 나타난다. 단락1~4, 단락7, 단락11은 지상계 장면이고 단락5, 단락6, 단락8~10은 수중계 장면인데, 지상계 장면 속에 수중계 장면이 뒤섞여 있다. 즉, 단락4와 단락7 사이에 단락5~6이 들어가고 단락7과 단락11 사이에 단락8~10이 들어간다. 한 쪽이 다른 쪽에 들어가지만 한가 하면, 그렇지 않다. 양계는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다. 김진옥이 부친의 권유로 용궁에 들어가므로 지상계 장면이 수중계 장면에 영향을 끼쳤고, 용궁 보배로 유소저를 소생시켰으므로 수중계 장면이 지상계 장면에 영향을 끼쳤다. 어느 이본에서나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서술자는 양계의 교차적 배치 현상을

17) 김진옥은 지상계에서 천자로부터 ‘상장군 겸 대원수’라는 職品을 부여받고 수중계에서 용왕으로부터 ‘수부 대도독’이라는 직품을 부여받는다. 직품은 다소 다르지만 모두 군대의 우두머리를 가리키고 있고 아주 낮익은 용어들이다.

18) 해당 원문을 들기로 한다. “守門者 皆著彭鯢鱉之甲”

필수적이라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술자의 인식이 이와 같이 지속되는 이상, 수중계 장면의 환상성은 지상계 장면의 전반적 정황과 별개일 수 없다.

이렇게 보니, 수중계 장면은 독자성뿐만 아니라 의존성도 지닌다. 『김진옥전』 서술자가 김진옥이 유별나게 용궁 체험을 한다고 호들갑을 떨면서(도19) 지상계의 여러 장면과 용궁 체험 장면을 하나의 고리를 묶어내다 보니, 독자성과 의존성이 동시에 생겨났다. 작품 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의존성이 아주 중요하다. 김진옥의 용궁 진입 장면이 화산도사의 도움, 부친과의 조우, 유소저 소생 등과 같은 지상계 장면과 어우러져서 서로간에 원인이 되거나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장면과 장면과의 연결 고리가 미약한 『이대봉전』과 『양주봉전』과는 이 점에서 다르다. 의존성을 유지하는 주체가 서술자라고 볼 때 『김진옥전』 서술자는 용궁이라는 환상세계를 인과의 틀 속으로 이끌어간 주역이다. 이런 서술자로 인해 용궁이라는 환상세계는 김진옥에게 일상적 체험의 장이 되기도 하고 생애 전체의 일부가 되기도 한다.

## 2. ‘육망-성취’ 구도와 그 환상미학

김진옥에게 있어 삶의 주 무대는 어디까지나 지상계이다. 유소저와 결연하는 공간도 지상계이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곳도 지상계이다. 수중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공간이나 하면 그렇지 않다. 유소저와 결연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수중계가 필요하다. 수중계는 김진옥의 가치

---

19) 서술자는 들뜬 감정으로 등국 용왕의 정벌 과정을 서술한다. 청의동자가 급하게 일엽편주를 타고 왔든지 짧은 시간 안에 용궁으로 진입했다든지 용왕으로부터 천리비룡마와 백리회소검을 받았다든지 등국 용왕의 천병만마를 기습작전으로 무찔렀다든지 하는 언술이 그것이다. 서술자가 호들갑을 떠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를 높여주는 공간일 뿐 아니라 진귀한 보배를 제공하는 공간이기도 하다. 수중계가 삶의 주 무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중요한 까닭은 김진옥이 지상계에서는 존재가치를 온전히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김진옥은 수중계에서 존재가치를 어떻게 확보하며, 그 존재가치로 인해 어떤 위상을 지니게 되는지가 의문이다. 『김진옥전』에는 ‘육망-성취’ 구도<sup>20)</sup>가 작동하므로, ‘육망-성취’ 구도를 검출한 다음 의문을 해명하기로 한다.

‘육망-성취’ 구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 단계인 ‘현실’과 ‘노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고난이 닥쳐오자 김진옥이 고난을 극복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고 그런 욕망을 추구하자 성취도가 드러나기 때문에, ‘육망’의 선행 단계는 ‘현실’이고 ‘성취’의 선행 단계는 ‘노력’이다. ‘노력’의 결과가 ‘성취’인 현상이야 당연하지만, ‘고난’으로 인해 ‘육망’을 지니는 현상<sup>21)</sup>은 당연하지 않다. 뒤집어서, 욕망으로 인해 고난에 직면한다는 설정도 가능한 까닭이다. ‘고난’으로 인해 ‘육망’을 지닌다면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성취도가 고난의 크기를 넘어서지 않을 듯하나, 『김진옥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sup>22)</sup> 즉, 수중계라는 환상적 공간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성취도가 고난의 크기를 넘어서게 한다. 현실과 욕망의 관계, 노력과 성취의 관계는

20) 어느 영웅소설에서나 ‘육망-성취’ 구도가 나타나지만, 『김진옥전』의 환상적 장면에서는 아주 뚜렷하게 나타난다. 『김진옥전』 서술자가 전대의 일반적인 ‘육망-성취’ 구도를 가져와서 활용한다고 할 수 있다.

21) 여타 영웅소설의 주인공은 소시적에 막연하게나마 미래에 대한 비전과 포부를 지니지만, 김진옥은 소시적에 그런 비전과 포부조차 지니지 않고 있다. 비전과 포부는 고난이 닥쳐왔을 때 비로소 형성된다. 김진옥의 경우는 고난이 닥쳐와야 영웅이 될 수 있는 인물이다.

22) 고난의 크기와 성취도를 수치로 전주는 어려우나, 결말 부분을 보면 성취도가 고난의 크기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김진옥이 천상계로부터는 천신의 비호를 받고 수중계로부터는 용신의 예찬을 받고 지상계로부터는 천자의 칭송을 받는다. 수중계와 지상계로부터는 최고의 벼슬까지 받게 되므로, 성취도가 고난의 크기를 능가한다고 할 수 있다.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에 나타나므로, 유년시절과 청년시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 현실과 욕망

유년시절 : 현실 - 난리로 인한 가족 이산

욕망 - 부모찾기

청년시절 : 현실 - 혼사 장애와 극심한 고난

욕망 - 부모찾기와 유소저와의 결연

□ 노력과 성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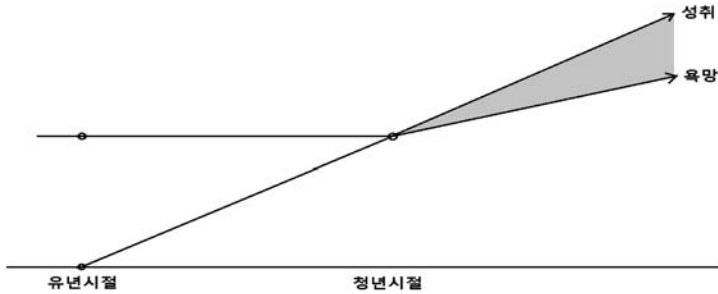
유년시절 : 노력 - 돈독한 효심

성취 - 전혀 없는 상태

청년시절 : 노력 - 적극적 노력과 무용 과시

성취 - 결연과 장원급제와 수륙의 출장입상

유년시절과 청년시절 간에는 격차가 있다. 욕망의 측면에서 볼 때 유년시절에서는 부모찾기뿐이다가 청년시절에서는 유소저와의 결연이 더 추가된다. 성취의 측면에서 볼 때 유년시절에서는 전혀 없다가 청년시절에서는 결연과 장원급제와 수륙의 출장입상 등을 거쳐 무소불위의 권능을 획득한다. 욕망의 측면보다 성취의 측면에서 격차가 현저하다. 유년시절에서는 아무 것도 성취하지 못한다고 해놓고 청년시절에서는 엄청난 권능을 성취한다고 한다. 엄청난 권능을 성취하는 데 근거가 있느냐가 관건인데, 욕망 크기와 성취도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따져볼 필요가 있다. 김진옥의 성취도는 욕망 크기를 훨씬 넘어선다. 청년시절의 욕망 크기는 개인적 차원이지만, 청년시절의 성취도는 국가적·우주적 차원이다. 이런 정황을 헤아려 김진옥을 정의하면, ‘꿈꾸지도 않은 엄청난 권능을 자기도 모르게 성취한 행운아가 된다.



김진옥이 어떻게 해서 엄청난 권능을 획득하는지가 관심사이다. 이른바 엄청난 권능은 도표의 삼각형 부분에서 나타나므로, 삼각형 부분을 파헤치면 된다. 삼각형 부분에는 김진옥과 유소저의 결연 문제가 주를 이룬다. 결연 문제에 대한 서술자와 김진옥의 시각은 다르다. 서술자는 김진옥이 謫降仙人이기 때문에 적강선녀인 유소저와 결연해야 한다고 여기는 데 비해, 김진옥은 전청배필이기 때문에 결연해야 한다고 여긴다. 김진옥에게 있어 결연은 지상계의 과제이고 서술자에게 있어 결연은 천상계의 과제가 된다. 문제는 무양공주가 유소저를 하옥하고 김진옥의 귀환을 방해한다는 데 있다.<sup>23)</sup> 김진옥이 무양공주를 제압할 수 없다는 점에서, 김진옥의 욕망 수준이 서술자의 기대 수준에 도달하기 어렵다. 서술자가 『김진옥전』에서 환상성을 주입하는 길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sup>24)</sup> 삼각형 부분은 이렇게 해서 생겨났다.

23) 무양공주는 김진옥과 결혼하고 싶어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 이후, 타처로 혼인을 했으면서도 김진옥 부부를 죽이기 위해 갖은 모책을 구사한다. 즉, 김진옥이 월국왕과 역모를 꾸민다고 고변하고, 간신들의 모함을 받아들여 혈족인 애운을 죽이려 하고, 유소저를 죽이기 위해 하옥시킨 뒤 물을 주지 않고, 김진옥이 국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를 없애라고 지시한다.

24) 서술자의 입장에서는 김진옥의 욕망 수준에 상관없이 기대 수준이 충족되어야 하므로, 특단의 방법을 활용하여 기대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환상적 장면의 설정은 특단의 방법이다.

□ 화산도사의 구원 - 결연 기반의 조성

1. 김진옥을 거두어주고 무예와 학문을 가르친다.
2. 파시에 응해 인간지락을 느껴보라고 주문한다.
3. 노승, 청의동자, 노고, 복자, 노인으로 변신한다.
4. 김진옥이 가야 할 곳을 하나씩 하나씩 지시한다.
5. 전란시에 천자에게 김진옥을 출전시키라고 한다.
6. 김진옥에게 현몽해 한시 바빠 출전하라고 한다.
7. 걱정을 김진옥에게 알려주고 대비하라고 한다.
8. 김진옥에게 현몽해 독선을 타고 귀환하라고 한다.
9. 유소저가 처형당하니, 금일 당도하라고 알려준다.
10. 김진옥이 배를 구하지 못하자 도력으로 배를 보낸다.

□ 용왕의 환대와 예찬 - 존재 가치 상승

1. 김진옥이 승전하자 삼해 용왕을 칭해 대연을 배핀다.
2. 신비한 위력을 지닌 비단과 진주를 선물로 준다.
3. 천자에게 글을 올려 김진옥의 용력을 극력 칭송한다.

□ 천신과 용신의 원조 - 가족 재회의 환희

1. 천제가 용신에게 칙지를 내려 애운을 구출하라고 한다.
2. 용신이 강물에 빠진 애운을 물 밖으로 던져 살게 한다.
3. 진주로 유소저를 살려내고 가족 재회의 기쁨을 나눈다.

삼각형 부분에 나타난 환상적 장면은 세 갈래이다. 화산도사의 구원, 용왕의 환대와 예찬, 천신과 용신의 원조가 그것이다. 화산도사의 구원은 결연 기반을 다지는 데 절대적이다. 천애고아인 김진옥을 거두어 유소저의 배필이 되도록 성상지킨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결연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만으로 부족하다. 무양공주의 장벽을 넘어서야 결연이 가능하므로, 국가적·우주적 차원의 권능을 확보해야 한다. 남해 용왕이 김진옥에

게 등극 용왕을 격퇴해달라고 하는 장면은 권능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수중계 장면도 가족 재회의 환희는 부여하지 못한다. 천신이 개입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김진옥의 욕망 수준이 서술자의 기대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토록 많은 환상적 장면이 필요하다. 역설적이게도 환상적 장면의 개수는 곧 김진옥의 욕망 수준이 미치지 못하는 한계 지수가 된다.<sup>25)</sup>

『김진옥전』의 ‘욕망-성취’ 구도는 이중적이다. 겉으로는 김진옥이 욕망을 성취한다는 전개방식이되, 속으로는 서술자가 그 자신의 기대 수준과 김진옥의 욕망 수준 사이에 있는 간극에 환상적 장면을 주입해서 김진옥을 끌어올리는 전개방식이다. 전개 방식을 종합하면 ‘욕망-성취’ 구도에는 두 욕망이 있다. 김진옥이 내세우는 욕망이 그 하나요, 서술자가 김진옥을 통해 내세우는 욕망이 그 다른 하나이다. 두 개의 욕망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 하나로 통합된다. 특별한 절차란 ‘환상적 장면의 주입 과정’으로서 환상미학의 논의를 가능하게 하는 징검다리다. 즉, ‘욕망-성취’ 구도가 환상적 장면을 끌어들이고 이 환상적 장면은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 가족윤리의 욕망이 천신과 용신을 감동시킬 때 ‘가늠할 수 없는 삶의 희열’을 맛본다고 하는 점이 그것이다. 이런 작중 진실이야말로 환상적 장면이 지향하는 미학이다.

25) 사실주의 관점에서 보면 김진옥은 미래가 암울한 피락호이다. 환상세계의 조력이 없으면 김진옥이 어떤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불만도 하다. 물론, 사실주의적 관점만이 올바른 관점은 아니다. 인간의 삶이 복잡다단하고 불가해하다는 점에서, 낭만주의적 관점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적지 않다. 김진옥이 그런 경우이다. 김진옥에게는 ‘보이는 삶’보다 ‘보이지 않는 삶’이 더 많이 나타난다. 『김진옥전』의 독자는 이런 측면에 흥미를 느끼고 애독했으리라 본다. 63편이나 되는 이본이 그 증거가 아닌가 한다.

#### IV. 환상미학 차원에서 본 『김진옥전』의 의의

환상적 장면이 지향하는 미학이 환상미학이다. 환상미학에 의거하면, ‘보이지 않되 인간의 삶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세계’가 별도로 있다. 천상계·수중계와 같은 이계가 그 예이다. 이계가 인간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믿을 때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이미 환상미학의 영역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환상미학을 구술하거나 서술하면 환상미학의 결정체가 된다. 『김진옥전』에는 화산도사와 천신과 용신이 등장해서 김진옥의 삶에 영향을 끼치므로, 『김진옥전』이야말로 환상미학의 결정체이다. 환상미학의 결정체라면 그에 걸맞는 의의를 지니게 마련이다. 그 의의는 무엇인가? 『김진옥전』에서 나타나는 환상미학이 고소설의 자기 갱신 노력과 무관하지 않을 듯하므로,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의문에 답하기로 한다.

##### 1. 反文化 지향과 인식의 새 틀 제시

주인공 김진옥은 경험적 세계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한다. 어디로 가야할지 방향할 때 화산도사가 변신해서 갈길을 인도하고, 유소저가 사경에 처했을 때 용궁의 진주가 목숨을 되살려내고, 아들 애운이 물에 빠졌을 때 천신이 용신을 시켜 물가로 밀어낸다. 초경험적 사건의 당사자인 김진옥은 일련의 체험을 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서술자는 한 술 더 떠서 호들갑을 떨며 초경험적 사건을 이리저리 소개한다. 『김진옥전』의 초경험적 사건은 지배이념인 유교문화의 합리성과는 정면에서 어긋난다. 유교사상은 그 나름대로 현실을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당대로 보아서 현실주의를 지향하는 측면이 있다. 초경험적 사건이 유교문화의 합리성과 어긋난다면 결국 시대의 대세인 현실주의와 맞서는 셈이 된다.

합리성에 바탕을 둔 유교문화의 현실주의를 유교적 현실주의라고 할 때, 『김진옥전』 서술자는 유교적 현실주의와 맞서는 요목을 대거 내세운다. 효행, 이익, 가치의 요목이 그것이다. 효행이라고 하면 극단적 효행을 가리킨다.<sup>26)</sup> 서술자는 김진옥이 부모찾기에 나설 때 개인의 삶은 도모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상적 효행보다 극단적 효행이 더 바람직하다고 하기 위함이다. 이익이라고 하면 사적 이익을 가리킨다. 서술자는 김진옥이 勒婚 위기에 몰리자 국난이 일어났는데도 칭병불응한다고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하기 위함이다. 가치라고 하면 ‘보이지 않는 것’의 공정을 가리킨다. 서술자는 김진옥이 용궁에 과감하게 진입하고 수중전쟁에서도 몸을 사리지 않는다고 한다. ‘보이는 것’만이 삶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삶이라고 하기 위함이다. 서술자가 내세우는 요목 세 가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효행 : 일상적 효행보다 극단적 효행이 더 훌륭하다.

이익 : 공익과 사익이 충돌할 경우에는 사익을 선택한다.

가치 : ‘보이는 것’ 못지않게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김진옥전』 서술자의 언술은 유교적 현실주의와 어긋난다. 한 마디로 말해, ‘유교적 현실주의와 정반대 논법 취하기’이다. 유교적 현실주의에서는 극단적 효행보다 일상적 효행을 더 권장하며, 사익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며, ‘보이는 것’을 선호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배척하곤 한다. 순서대로

26) 효행 방법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가 있다. 부모를 위해 극단적인 행위를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경우와 범백일상에서 온갖 정성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경우가 그것이다. 두 가지 방법은 대체로 겹쳐지지만, 이념화 내지 목적화의 경향을 띠면 상호 배타성을 띠게 된다. 이런 현상을 염두에 두고 전자를 극단적 효행이라 하고 후자를 일상적 효행이라 할 수 있다.

근거를 들면 다음과 같다. 吮腫, 悅親, 定省, 侍墓, 服喪과 같은 일상적 효행이 바람직하다고 하며 割股, 斷指, 代殺과 같은 극단적 효행을 ‘以孝傷孝’라 하여 기피한다는 점,<sup>27)</sup> 모든 윤리교화서에서 개개인은 사익에 연연하지 말고 군주 내지 국가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고 한 점, 공자 이래 여러 유학자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怪力亂神 혹은 鬼幻라고 한 점<sup>28)</sup>이 그것이다. 이와 같이 『김진옥전』 서술자가 ‘유교적 현실주의와 정반대 논법 취하기’를 하는 연유는 명약관화하다. 유교적 현실주의에 反旗를 들기 위함이 아닌가 한다.

『김진옥전』 서술자의 반기는 일종의 反文化 현상이다. 반문화 현상이란 주류 문화에 반대하는 자들이 공유하는 의식이나 태도로서 사회의 하부구조에서 태동·확산하는 경향이 있다. 반문화 현상은 예로부터 있어 왔다. 고설화나 고소설에서 나타나는 異類交婚이나 異界探訪과 같은 환상적 장면이 그 예이다. 李奎報의 <東明王篇>에서 보듯, 고려시대에는 이미 환상적 장면을 황탄기괴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sup>29)</sup> 황탄기괴하다는 평가는 반문화 현상에 대한 주류 문화의 압박인데, 이런 압박에 대개는 위축되게 마련이다.<sup>30)</sup> 『김진옥전』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 창작 시기가 유교적 현

27) 金富軾은 『三國史記』列傳8, <向德聖覺>에서 韓愈의 “毀傷滅絕之罪”論을 거론하면서 일상적 효행을 강조하고 극단적 효행을 비판했다. 趙南旭, 『儒家 孝論과 肉身 孝行의 問題』, 『儒家思想研究』37, 韓國儒家學會, 2009, pp.133-137 참조.

28) 정통 유학자들은 『論語』述而篇의 “子不語 怪力亂神”에 의거해서 환상적 장면을 幻과 鬼라고 했다.

29) 『東國李相國集』卷3, 古律詩, <東明王篇>에서 『舊三國史』<東明王本紀>를 세 차례 읽고 나서야 幻이 아니고 聖이고 鬼가 아니고 神임을 깨달았다고 한다. 바꾸어 말하면, 두 차례 읽기까지 東明王實記를 幻과 鬼로 여겼다고 할 수 있다.

30) 그 단적인 예가 ‘고소설 작가의 익명성’이다. 이름을 숨긴 까닭은 여러 가지이겠으나, 대부분은 고소설 창작에 대한 자괴감 때문이다. 이런 자괴감은 주류 문화의 압박에 움츠러들었기 때문에 생긴다.

실주의가 위력을 잃은 20세기초였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강자가 통제력을 잃을 때 약자가 반격하듯, 주류 문화가 위력을 잃자 『김진옥전』의 작자층이 새로운 효행, 이익, 가치라는 반문화적 요목을 무기로 삼아 반격했다고 할 수 있다.

‘반격’이 곧 ‘부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반문화적 요목은 주류 문화의 편향성에 대한 반격이지 주류 문화에 대한 전면적 부정은 아니다. 서술자가 충의 상대적 위치에孝를 포진시킬지언정孝를 忠으로 확장시키지 않으며,<sup>31)</sup> 부모와 유소저의 안위를 걱정할지언정 군주의 안위는 걱정하지 않으며, 지상계의 가치는 부정할지언정 수중계의 가치는 부정하지 않으므로, 그동안 홀대받아온 반대편의 위상을 다각도로 긍정했다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孝의 독자성이 인정되고 혈육과 애정이 삶 의 목적으로 발돋움하고 이계의 인식론적 가치가 증대된 바이니, 서술자가 전체 중시의 관점에서 개체 중시의 관점으로 인식의 틀을 전환시켰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서술자를 운용하는 주체가 작자라고 볼 때, 『김진옥전』의 작자층이 서술자를 내세워 그동안 은폐되거나 추방된 문화의 한 축을 새롭게 부각시켰다고 할 수 있다.

## 2. 경계 해체와 우주론적 사유의 확장

『김진옥전』에서는 천상계와 지상계와 수중계, 이 삼계의 관계가 긴밀하다. 여타 군담소설에서도 삼계가 긴밀하기는 해도 상호 간극이 있는 바인데, 『김진옥전』에서는 삼계가 긴밀할 뿐 아니라 상호 간극도 없다. 간극이

31) 일반적으로 孝의 확장된 형태가 忠이라고 하나 『김진옥전』 서술자는 전혀 그렇지 않다. 孝는 강조되되 忠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헛말이라도 忠이라는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다는 점이 그 방증이다.



없는 까닭을 화산도사의 역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에서 살폈듯이, 화산도사가 천제의 명령을 받거나 天機를 읽거나 하여 삼계를 수시로 연결한다. 화산도사라는 끈으로 연결된 삼계는 무한히 넓은 하나의 우주이다. 삼계가 연결되어 하나의 우주를 형성하므로, 그 우주그물망에 놓인 모든 인물도 서로 긴밀하다. 김진옥과 부모와 유소저와 천자와 남해 용왕이야 당연히 긴밀하고, 무양공주와 등곡 용왕은 적대자이되 대면관계이기 때문에 긴밀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세계나 인물의 긴밀성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눈점을 다지기 위해서는 삼계가 어떻게 해서 긴밀해지는지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화산도사가 다양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화산도사의 주요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김진옥에게 앞길을 안내할 뿐 아니라 유소저와 가연을 맺게 하고, 풍랑을 일으켜 부친과 만나게 할 뿐 아니라 남해 용궁으로 진입하게 하고, 천상계 선관과 김진옥을 만나게 할 뿐 아니라 용신에게 김진옥의 아들을 구원하도록 한다. 화산도사의 역할을 순차적으로 정리하면, 천상계와 지상계의 간극 메워주기, 지상계와 수중계의 간극 메워주기, 천상계와 수중계의 간극 메워주기다. 그 다음으로, 세계와 세계가 상호 교섭한다는 점이다. 천상계와 지상계가 영향을 주고받고, 지상계와 수중계가 영향을 주고받고, 천상계와 수중계가 영향을 주고받는다. 화산도사의 역할 이상으로 세계 간의 교섭이 긴밀성을 가중시키므로 정리해보기로 한다.

#### □ 천상계와 지상계의 관계

1. 김진옥이 하늘에 축수하면 천신이 즉시 반응한다.
2. 김진옥이 돈이 없어서 울자, 천신이 돈을 내려준다.
3. 유소저가 감옥에 있을 때 선녀가 현몽하여 위로한다.

## □ 지상계와 수중계의 관계

1. 남해 용왕의 시동이 김진옥을 해중으로 데리고 간다.
2. 용궁의 보배 진주가 유소저를 소생시키는 기능을 한다.
3. 용왕이 황제에게 김진옥의 武德을 칭송하는 편지를 쓴다.

## □ 천상계와 수중계의 관계

1. 용궁의 연회에 천상계의 선녀가 등장한다.
2. 천상계의 6선관이 용궁에서 김진옥과 상봉한다.
2. 천신이 용신에게 김진옥의 아들을 살리라고 명령한다.

삼계는 상호 교섭하되 각기 독자적인 문화를 지니고 있다. 즉, 천상계에서는 ‘지상계·수중계의 수평적 경영’을 지향하고, 지상계에서는 ‘천명 순응과 정체성 확보’를 지향하고, 수중계에서는 ‘진귀한 보배 보유와 연회 거행’을 지향한다. 그 근거를 순차적으로 들면, 천신이 직접 명령하기보다는 명령 이행자를 내세운다는 점, 주인공이 하늘에 순응하면서도 자기 욕망을 개척한다는 점, 용왕이 진귀한 보배를 가졌고 연회를 자주 거행한다는 점이 된다. 삼계의 문화는 배타적이지는 않되 각기 독자성을 지녔기 때문에 간극이 불가피하다. 그대로 두면 간극은 좁힐 수 없다. 천상계가 일방적으로 간극을 좁히면 될 듯하나, 그럴 수 없다. ‘지상계·수중계의 수평적 경영’ 문화를 지향하는 까닭이다. 삼계가 하나의 우주를 형성하려면 각 세계가 여타 세계의 단처를 보완해주는 길밖에 없다. 『김진옥전』이 그런 양태를 보인다.

각 세계가 상호 단처를 보완해주는 연유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각 세계가 다른 세계를 배려한다고 할 수는 없고, 서술자가 삼계를 하나로 묶어 이해한다고 해야 온당하다. 하나로 묶어 이해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시각을 對稱的 世界觀이라 부를 수 있다.<sup>32)</sup> 대칭적 세계관이란 주체와 객체가 독

자성을 지니되 상호 대등하고 내밀하다고 여기는 시각을 가리킨다. 서술자가 대칭적 세계관을 지녔다고 볼 때, 삼계가 왜 상호 내밀한 관계인지를 설명해낼 수 있다. 대칭적 세계관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각 세계의 등위가 엇비슷해야 한다. 화산도사의 역할이 커지면서 천상계의 위력이 떨어진 바이니, 서술자가 대칭적 세계관을 구현하기 위해 천상계를 약화시키고 삼계를 상보적 관계로 설정했다는 언급이 가능하다. 결국, 각 세계가 독자적 문화를 지니면서 상호 단차를 보완해주는 연유는 이 대칭적 세계관에서 기인한다.

서술자가 대칭적 세계관을 지녔다면, 다음의 두 가지 사유와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세계의 현상은 각기 다르되 그 본질은 동일하다고 여겼으리라는 점과 각 세계가 고유의 장단차를 지니되 여타 세계의 단차를 보완해준다고 여겼으리라는 점이 그것이다. 두 가지 사유 중에서 택일할 사안이 아니다. 각 세계가 상호 단차를 보완해주며 하나의 우주를 형성하므로, 두 가지 사유 모두가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서술자와 결부된다. 여타 서사 작품의 경우에는 서술자가 대칭적 세계관을 장착하더라도 그 대칭적 세계관이 특정 목적의 구현 수단이 되기가 일쑤이다.<sup>32)</sup> 해체는 사유를 낳는다. 『김진옥전』 서술자가 삼계의 경계를 해체하고 우주론적 사유를 구현했으므로, 상대적 관점이 우주론적 사유를 확장시켰다고 할 만하다. 서술자의

32) 대칭적 세계관의 개념 및 의의에 대해서는 신태수, 「〈단군신화〉의 대칭적 세계관과 그 후대적 변이」, 『민족문화논총』5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pp. 586-595에서 논의한 바 있다.

33) 『三國遺事』의 고승행적담에 담긴 대칭적 세계관이 그 좋은 예이다. 고승행적담에서는 불교적 우주 그물망을 구현하기 위해 대칭적 세계관을 철저히 수단으로 활용한다. 지상계와 수중계의 위상을 대등하게 설정한 『이대봉전』·『양주봉전』·『구운몽』의 경우도 이와 동일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대칭적 세계관이 주인공의 용력을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서 활용되기 때문이다.

조종자가 작자층이라고 볼 때, 작자층이야말로 우주론적 사유를 확장시킨 주역이다.

## V. 결론

『김진옥전』은 20세기초에 창작된 환상소설이다. 20세기초라면 고소설이 신소설과 경쟁하며 자기 갱신 노력을 펼치던 시기였으므로, 그런 자취가 『김진옥전』에서도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 환상성과 세계인식의 양상을 추출하고, 고소설의 자기 갱신 노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수중전쟁담을 주목해 보아야 한다. 수중전쟁담은 작품 내적인 비중이 높고 기능도 중대할 뿐 아니라 모티프 차원을 넘어 미학적 차원으로까지 『김진옥전』을 끌어올리기 때문이다.

수중전쟁담은 두 가지 모티프의 합성물이다. 즉, ‘영웅이 귀국 도중에 용족의 요청을 받고 용궁에 들어가기’ 모티프와 ‘영웅이 용족을 괴롭히는 적대세력 물리치기’ 모티프가 그것이다. 두 가지 모티프는 『김진옥전』 이외에 『이대봉전』·『양주봉전』·『구운몽』에도 나오지만, 그 기능이 동일하지는 않다. 수중 전쟁담이 없더라도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여타 작품과는 달리, 『김진옥전』은 수중전쟁담이 없다면 주제 형성에 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 점에서 『김진옥전』의 작자층이야말로 수중전쟁담이라는 전승 삽화의 계보를 발전적으로 계승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수중전쟁담의 수중계는 비현실적 공간이다. 이런 공간에서 주인공이 어색해 할 듯하나, 의외로 자연스럽다. 수중계가 지상계와 그리 다르지 않은 까닭이다. 주인공이 불세출의 영웅이어서 수륙 양계를 넘나든다고 하려니 수륙 양계의 차이를 둘 수 없었다. 주인공이 영웅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이

만으로 부족하다. 서술자가 시도한 획기적 작업이 하나 있다. 지상계와 수중계의 교차적 배치 현상이 그것이다. 이런 시도로 인해 용궁이라는 환상 세계는 인과의 틀 안에 들어간다. 당연히 용궁이라는 환상세계는 김진옥에게 일상의 한 체험이고 생애 전체의 일부가 된다.

용궁이 생애 전체의 일부로서 지상계의 욕망을 성취시켜 준다면, 용궁으로 인해 ‘욕망-성취’ 구도가 형성된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욕망-성취’ 구도에는 두 개의 욕망이 들어 있다. 김진옥의 욕망과 김진옥을 통해 나타나는 서술자의 욕망이 그것이다. 두 개의 욕망은 특별한 절차를 거쳐 하나가 된다. 즉, ‘욕망-성취’ 구도가 환상적 장면을 끌어들이고 이 삼각형 모양의 환상적 장면이 삶의 진실을 드러낸다. 가족윤리의 욕망이 천신과 용신을 감동시킬 때 삶의 희열을 만끽한다고 하는 점이 바로 삶의 진실이다. 이런 진실이야말로 환상적 장면이 지향하는 미학이다.

환상미학 차원에서 볼 때 『김진옥전』은 크게 보아 두 가지의 의의를 지닌다. 첫째, ‘반문화 지향과 인식의 새 틀 제시’이다. ‘유교적 현실주의와 정반대 논법 취하기’라는 反文化 현상이 전체 중시의 관점에서 개체 중시의 관점으로 인식의 틀을 전환시킨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둘째, 경계 해체와 우주론적 사유의 확장이다. 대칭적 세계관이 삼계의 높낮이를 무너뜨리고 우주론적 사유를 확장시킨다는 점이 그 근거이다. 서술자가 구현한 두 가지의 의의를 『김진옥전』 작자층의 몫이고 볼 때, 『김진옥전』 작자층 모두가 환상미학의 주체요 구현자라는 언급이 가능해진다.

## 【참고문헌】

- 국응상, 「김진옥전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 김경숙, 「〈金振玉傳〉研究」, 『연세어문학』 21,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8.
- \_\_\_\_\_, 「후기 군담소설의 고찰-〈김진옥전〉을 중심으로」, 『洙上古典研究』9, 洙上古典研究會, 1996.
- 김성룡, 「고전소설의 환상 미학」, 『韓國 古典小說과 敍事文學(上)』, 集文堂, 1998.
- 김승호, 「해양 공간의 설화적 수용과 의미-『三國遺事』를 중심으로」, 『韓國文學研究』 37,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2009.
- 金煥泰, 「新羅佛敎에 있어서의 龍神信仰」, 『佛敎學報』11, 東國大 佛敎文化研究院, 1974.
- 김현양, 「1910년대 활자본 군담소설의 변모 양상」, 『淵民學志』 4, 淵民學會, 1996.
- 노상진, 「김진옥전의 이본양상과 서사구조」, 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성석, 「〈김진옥전〉 연구-설화적 측면을 중심으로」, 『배달말』 11, 배달말학회, 1986.
- 신태수, 「『三國遺事』의 龍王과 龍宮 形象」, 『韓民族語文學』 74, 한민족어문학회, 2016.
- \_\_\_\_\_, 「〈단군신화〉의 대칭적 세계관과 그 후대적 변이」, 『민족문화논총』 5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2011.
- 이명현, 「〈김진옥전〉의 대중성-도식성과 환상성을 중심으로」, 『東아시아古代學』 18, 東아시아古代學會, 2008.
- 張貞海, 「佛經 속의 龍」, 『中語中文學』 22, 韓國中語中文學會, 1998.
- 趙南旭, 「儒家 孝論과 肉身 孝行의 問題」, 『儒家思想研究』 37, 韓國儒家學會, 2009.
- 스티스 톰슨, 『說話學原論』, 尹勝俊·崔光植 譯, 啓明文化社, 1992.

Abstract

A Study on the Underwater War Illustration and Fantastical  
Aesthetics of *Kimjinokjeon*

Shin, Tae-soo

*Kimjinokjeon* is a classical novel with a strong element of fantasy. Its illustration depicting an underwater war enhances its fantasy further. In the illustration, the underwater world is not only equal to the terrestrial world, but also arranged, intersecting with it. In a world, the underwater world claims considerable status. Since the protagonist cannot fulfill his desire without the underwater world, it is safe to say that the underwater world forms the “desire-fulfillment” structure, which contains two desires: one of Kim Jin-ok, and the other of the narrator. Their desires converge into one through a special procedure. That is, the “desire-fulfillment” structure forms a triangular shape by introducing a fantastical scene, and the fantastical scene in a triangular shape reveals the truth of life. The novel holds its significance in two aspects from the perspective of fantastical aesthetics: “anti-cultural orientation and presentation of a new perception framework” and “dissolution of a boundary and expansion of cosmological thinking.” Given that the narrator is manipulated by the writer, the writer of *Kimjinokjeon* is the subject and implementer of fantastical aesthetics.

Key Word : a strong element of fantasy, illustration depicting an underwater war, the “desire-fulfillment” structure, a fantastical scene, fantastical aesthetics, anti-cultural orientation, cosmological thinking.

신태수

소속 :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

전자우편 : djgjjgj@daum.net

이 논문은 2017년 4월 29일 투고되어  
2017년 6월 2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7년 6월 9일 게재 확정됨.